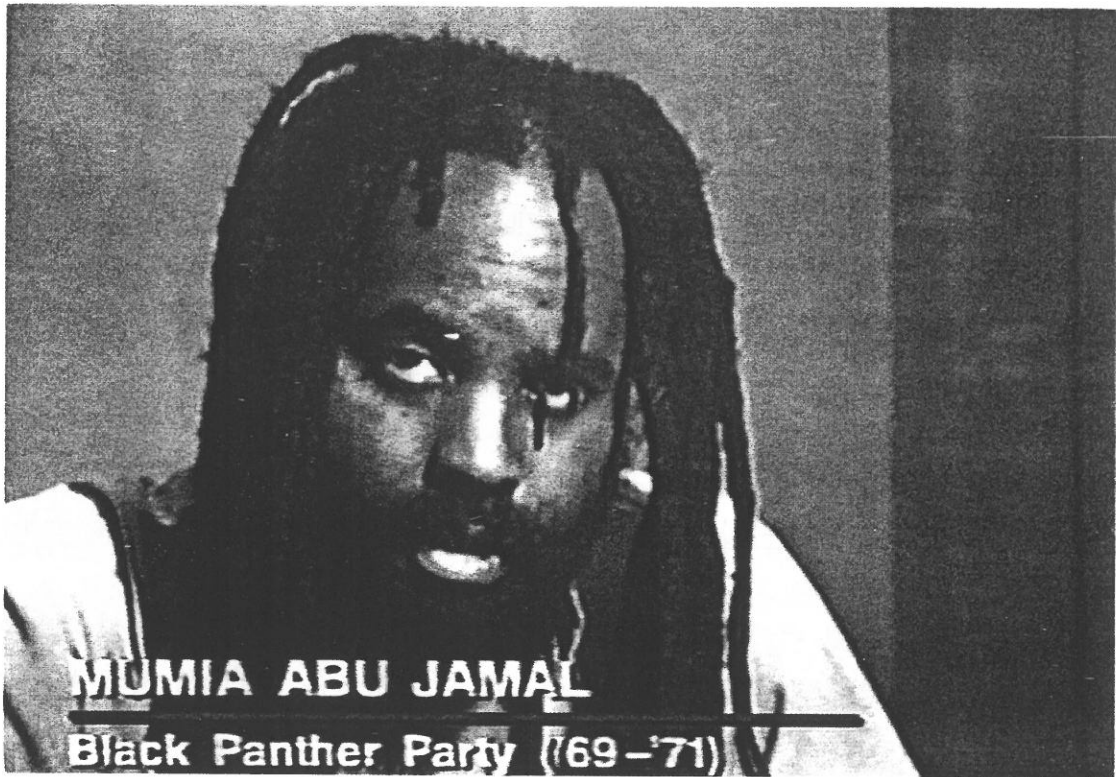


사 랑 사 랑

회원통신 제59호(99/11/23)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sarangbang.or.kr>



“FREE MUMIA! 무미아를 석방하라!”

1966년부터 82년까지 미국의 흑인민권운동을 이끌었던 무미아 아부자말. 그는 백인경찰을 죽였다는 혐의를 뒤집어 쓴 채 사형을 선고받고 17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다. 미국 필라델피아 주정부가 최근 그의 사형집행일마저 공고한 상태. 제4회 인권영화제의 개막작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All Power to the People>를 통해 미국 흑인민권운동의 역사와 만나보십시오.

제4회 인권영화제 개막

26일부터 동국대에서 일주일간, 풍성한 행사 곁들여

제4회 인권영화제가 개막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외국 영화 32편이 소개되고, 국내 작품도 14편이나 소개되는 풍성한 행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영화제는 이전과는 달리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영화제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번 영화제의 대표작으로는 개막작인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양심수인 블랙팬더당의 무미아 아부자말의 사형반대 운동이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이때,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유엔이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해 만든 <세계인권선언의 역사>는 교육용 다큐멘터리로 영화배우 해리슨 포드가 내레이션을 맡았습니다. 프랑스의 장애인 단체들이 대인지뢰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한 단편영화 <멈추지 않는 대량학살-대인지뢰>와 <중앙역>으로 알려진 브라질의 월터 살레스 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소코로 노브레>도 눈여겨볼 만한 작품입니다. 이번 외국 영화에는 상대적으로 애니메이션 작품이 많아서 시간을 잘 선택하면 가족끼리 영화 감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국내 작품들로는 유가협 부모님들의 투쟁을 담아 이미 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서 수상한 <민들레>를 비롯한 14편이 상영됩니다. 특히 인권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상영되는 작품으로는 <레드헌트2>, <꽃파는 할머니>, <끝나지 않은 싸움, 에바다>, <기차길옆 공부방> 등 4편이 있습니다.

<레드헌트2-국가의 범죄>는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어 서준식 대표의 구속을 몰고왔던 <레드헌트>의 후속편입니다. 조성봉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제주 4.3 학살을 국가의 범죄라는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꽃파는 할머니>는 한국전쟁 이후 미군 기지촌을 떠돌며 살았던 '미군 위안부'의 삶을 보여줍니다. <끝나지 않은 싸움, 에바다>는 3년간 지속되고 있는 평택 에바다농아원생들의 농성 투쟁을 다룬 다큐멘터리이며, <기차길옆 공부방>은 인천 만수동의 조그마한 공부방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치열하고도 따뜻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번 영화제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인권영화제를 도와주십시오

- 일반회원: 회비 1만원- 해설책자, 기념품을 드립니다.
- 특별회원: 회비 10만원- 해설책자와 기념품과 쇼아, 칠레전투, 4회 작품 패키지 중 원하시는 작품을 드립니다.
- 후원회원 신청: 전화 741-2407, 5363
- 먼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입금을 약속하시면 입금 확인을 거쳐서 우송해드리거나 영화제 현장에서 확인하여 드립니다.
- 담당: 고근예, 이주영

번역, 자막, 진행, 홍보 등의 역할을 맡아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원 회원들은 많이 줄어서 재정적인 적자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후원을 해주신다면 영화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화제 후원회원 신청은 앞 장 하단의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WTO섹션 등 풍성한 부대행사

이번 영화제는 세계적으로는 WTO 뉴라운드 협상이 진행되는 시점이라는 점, 20세기가 마감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부대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영화제 행사 중에 펼치는 주요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막식(26일 오후7시 동국대 학술문화회관 예술극장)

영화배우 명계남씨의 사회로 진행될 개막식에서는 4회를 맞는 인권영화제의 경과보고와 영화제 주요 상영작 하이라이트 상영, 그리고 가수 김원중, 이정렬 등이 초대가수로 자리를 빛냅니다.

□ '양심수 무미아 아부자말의 사형을 중지하라' 캠페인

미국의 대표적인 민권운동가 무미아 아부자말의 석방운동을 영화제 전 기간 동안 전개합니다. 개막작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상영과 함께 그의 사형중지 및 조속한 석방을 미 정부에게 촉구하는 엽서를 관객들에게 배포, 관객이 직접 엽서에 서명하게 하고 이를 수거, 미대사관에 전달하여 국제적인 연대행동을 함께 합니다.

□ 인권활동가와의 만남 "21세기 인권을 준비하는 사람들"(11월 28일 오후4시 학술문화회관 제1세미나실)

인권활동가들의 생생한 체험과 21세기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나누는 장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20세기 인권의 역사와 인권운동이 이룩한 중요한 성취, 남겨진 과제 등이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사회는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이 맡으며, 우리사회의 소수자들(장애인, 여성노동자, 동성애자)/전쟁/난민/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이주노동자/인권교육 등의 각 분야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11월 30일 오후4시 학술문화회관 예술극장)

11월 30일은 시애틀에서 WTO 뉴라운드 협상이 개시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시작으로 전세계 민중들은 동시다발적으로 WTO 반대 행동에 돌입합니다. 이에 맞춰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본의 행패를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하며 냉소적인 탄지를 거는 내용의 <황제의 새 옷> 등 영화 3편을 상영하고, '투자협정·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에서 준비한 만화 상영, 뉴라운드에 대응하는 민중행동 설명회, 퀴즈대회를 엽니다.

□ 폐막식(12월 2일 오후7시 동국대 학술문화회관 예술극장)

올해 신설된 '올해의 인권영화상'을 시상합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패가 주어지며, 수상작은 폐막작으로 재상영됩니다. 또, 후원회원 명단이 화면에 올라옵니다.

이처럼 놓치기 아까운 작품과 행사들이 풍부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sarangbang.or.kr>)를 참고하시고, 후원회원으로 꼭 참가하십시오.

사 / 업 / 보 / 고

(99년 10월 넷째 주부터 11월 넷째 주까지)

감옥 인권지침서 집필 중

자유권위원회는 『감옥 인권지침서』(가제)를 2천년 4월까지 발간하기로 하고, 집필을 분담하여 2주에 한번 꼴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각 장의 집필 분담자는 미결 수용-고근예/형사소송 절차-이상희/분류심사-정봉영/교도소 하루일과-김혜성/거실내 생활(흔거, 독거, 시설 등)-현정덕/거실외 생활(작업 등)-현정덕/징벌·규율·계호-최정학/접견, 서신, 영치, 구매-기명문/종교, 식사, 운동, 의료-김지영/청원;권리구제 수단-이상희·이랑/여성-전현선/귀휴, 가석방, 석방-유점열/기타 재소자 가족이 알아야 할 사항등으로 정해졌습니다. 자유권위원회 감옥모임은 이와 함께 출소자·인권사회단체·교정당국간의 간담회와 각 지역 인권단체와 워크샵, 캠페인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안을 보완하여 시민운동지원기금에 프로젝트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폭행 혐의로 안희권 검사와 수사관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지난 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유서를 분석하여 항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관찰 관련 정보공개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난 15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유권위원회에서는 이 소송을 맡아줄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보안관찰법 폐지 운동의 첫걸음이 될 이 행정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TO 반대 활동 발걸음 빨라져

11월 30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담이 다가옴에 따라 '투자협정, 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23일 긴급워크숍을 연 데 이어 24일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WTO 뉴라운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또한, 사회권위원회가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ASEM 2000 민간단체 포럼' 인권분과는 11월 19일 1박2일간 전주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지난해 런던 아셈회의 참가 민간단체들의 의사를 집약한 원칙을 담고 있는 'People's Vision'과 3차 아셈회의 정부간회의의 의제를 담고 있는 비전 그룹 보고서에 대해 토론을 가졌으며, 12월 모임에서는 인권분과에 제출할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준비해온 사회권 보고서가 출판사 사정과 마지막 원고 수정 작업으로 다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오는 12월 10일 출간될 보고서 『인간답게 살 권리』는 총 500쪽에 책값은 1만5천원입니다.

보고서 작업 이후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 조약 2차 민간단체 보고서 준비와 사회권 보장 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워크숍을 12월 3,4주에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사회권에 대한 논의와 한국 사회에서의 민간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게 됩니다.

한편, 사회권위원회는 영화제 부대행사 WTO 섹션을 맡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사회권위원회는 에바다

농성 투쟁 3주년인 2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는 집회 준비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보법, 국가인권기구 막바지 투쟁 국면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곧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현하려는 국민연대의 발걸음이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한나라당 규탄집회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연 데 이어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 성명을 낸 김용갑 의원 등 63명의 의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2시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국민연대가 개설한 국가보안법 홈페이지(사랑방 홈페이지에 있음)에는 관련 자료를 찾아가려는 사람들의 접속이 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 국면이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에 맞춰서 범국민연대와 집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대에 가입한 단체들이 움직이지 않아 사업을 맡은 서대표와 김정희씨 등이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인권법 수정안의 강행 처리가 임박함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27일 오후 3시부터 방송법, 국가보안법, 의료보험, 인권법, 교육개혁법, 노동시간단축법, 부패방지법, 의문사법 등의 개혁입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민주개혁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 연대행동'에 참가하는 것

을 비롯하여 광고, 원로성명, 농성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수정안이 국가인권기구의 위상에 대해 민간 법인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상황인지라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출할 계획입니다.

인권교육실, 교육·번역 등으로 바빠

인권교육실의 활동이 매우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YMCA 민주시민대학 학부모 대상 아동인권교육 등 7군데에서 초청을 받아 인권교육을 진행했고, 송실대 국문과 인권모임 학생들의 교육도 진행중입니다. 오는 2천년 1월에는 서울시 교육청이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인권교육에도 참가합니다. 또, 대학생인권캠프의 후속작업으로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4시에 월레포럼을 갖기로 하고, 첫 모임을 지난 6일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교육실은 영화제 부대행사 '인권활동가와의 만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실이 번역한 『Stand up for Human Rights』가 출판사로 넘어가 감수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감수가 끝나는 대로 출판하게 됩니다. 또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의뢰 받은 아동권에 관한 자료를 번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주최의 '동북아 인권교육 워크숍'에 민간단체 대표로 초청 받아 배경내씨가 참가합니다.

자료실, 키워드 정비·인터넷 주소 이전

자료실이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자료실은 기존의 키워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유엔 기준에 맞춰 새롭게 배치하였습니다. 새로운 키워드에 따라 서가도 정비중

에 있으며,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자료들을
숙아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각 행정부
처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묶어서 국정감사자
료집 제본하여 주문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
정감사 자료집에 대한 소개는 다음 페이지
상자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진보넷으
로 옮기고 있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바뀐
홈페이지 주소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홈페이
지와 대표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sarangbang.or.kr>
이메일: humanrights@sarangbang.or.kr

□ <인권하루소식> 합본 12호가 지난 10
월 하순 발간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1월
부터 6월까지)의 <인권하루소식>을 한권으
로 묶은 합본호입니다.

또한, <인권하루소식>은 지난 11월 19일
로 지령 1500호를 맞았습니다. 아무런 기념
행사없이 지나간 했지만, 매일 소식지 내느
라 고생하는 기자들에게 큰 박수 보내 주시
기 바랍니다.

□ 이창조 총무는 사무실의 재정난 타개
등을 위해 논술 시험 첨삭지도 아르바이트
를 우선 4주 동안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익금의 절반은 사무실 재정으로 쓰이게
됩니다.

□ <레드헌트사건>과 관련된 서대표 항소
심 1차 재판이 11월 12일 서울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렸으며, 다음 재판은 12월 17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다음 재
판에는 서부경찰서 장효석 형사에 대한 증
인 심문이 있습니다.

□ 10월 연수를 위해 태국으로 떠났던 배
경내씨가 지난 11월 6일 귀국했습니다. 배

경내씨는 아시아 각국에서 모인 현장 활동
가들과 함께 3주간의 연수를 받았으며, 마
지막 1주일 동안 태국 국경 지역의 난민촌
을 방문했습니다.

□ 매주 하루씩 나와 자원봉사를 하던 김
수경씨가 아이 보육 문제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수경씨는 2천년 1월
부터 반상근으로 복귀합니다.

99년 국정감사 자료집

(전질 5권, 17만5천원)

* 담당자: 엄주현, 날권 구입이 가능하며,
주문 제작합니다.

□ 외무통일위원회(총 696 쪽, 3만4천원) :
대북정책 및 북한실태 등에 관한 자료/ 국군포
로·납북자·미전향장기수 등에 관한 자료/ 군대
위안부·강제징용·재외동포 관련 자료/ 주한미
군·SOFA협정에 관련/ 환경·기후 협약 관련

□ 노동위원회(총 879 쪽, 4만3천원) : 노사
분류 및 노동쟁의 관련/ 부당노동행위 관련/ 산
업재해 및 직업병 관련/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노동시간·실업 관련/ 장애인 고용·외국인 노동
자 관련/ 여성 노동자 관련/ 국제노동관계 관련

□ 법제사법위원회(총 628 쪽, 3만원) : 현정
부의 인권정책 관련/ 국가 인신구속 기관 관련/
국가보안법 등 공안사건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등 감청 관련/ 영장청구 관련/ 검찰제도 관련/ 무
죄판결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관련

□ 보건복지위원회(총 841 쪽, 4만원) : 복지
정책 및 통계 자료/ 사회복지시설 관련/ 비리 사
회복지시설 관련/ 여성복지·보육시설 관련/ 노
인복지 관련/ 청소년·아동 복지 관련/ 장애인
복지 관련/ 생활보호대상자 등 빈민 복지 관련/
노숙자 부랑인 관련

□ 행정자치위원회(총 610 쪽, 2만8천원) :
체포시 변호인 접견권 보장 등 인권보호 활동 관
련/ 국가보안법 등 공안문제 관련/ 경찰 및 범죄
검거 현황 관련/ 경찰, 공무원 비리 현황/ 총기남
용 등에 관한 자료/도·감청 관련/ 전·의경 관
련/ 집회·시위 관련/ 미군·외국인 범죄 관련자
품 목록

99년 10월 재정 보고

(99년 10월 16일 - 11월 15일)

이월금: 559,407원

수입	지출
총사업수익 4,162,780원	사업비 968,120원
-하루소식 3,101,920원	-하루소식 362,370원
구독료(180명) 2,779,700	우편발송비 158,770
인권시평 배급 192,700	복사비 58,000
합본호 판매 129,520	합본호 제본·발송비 145,600
-정보자료실 325,710원	-자료실 149,100원
간행물·자료집 판매 178,610	정간물구독 85,000
영상자료 대여 20,000	자료구입비 55,100
자료복사비 19,600	자료발송비 9,000
국감자료집 판매 107,500	-자유권위원회 133,000원
-인권교육실(강연료) 440,000원	자료구입비 25,000
-사무국장(강연료) 295,150원	보안관찰행정소송 95,700
	국가보안법 캠페인 12,300
	-대외사업 234,000원
후원금 2,624,590원	윤금이씨 추모제 공동참여
-정기 후원회비 2,287,700	민중대회 대외위원 참가
-특별후원금 336,890	동티모르 영화상영회 공동주최
	국제엠네스티 활동가 댄존스 간담회 개최
기타 188,170원	-후원회원 관리 87,850원
-류은숙 기여금 140,000	합본호발송 65,720
-기타 48,170	사람사랑 제작·발송 55,100
부채(전화비) 700,000원	활동비 4,260,000원
	사무실유지비 912,910원
	통신비용 1,304,170원
	-일반전화, 팩스 1,132,790
	-피시통신, 인터넷 171,380
	사무비품 및 사무기기 205,200원
	사무국 식비 564,420원
	생필품 구입 49,740원
	기타 86,800원
총수입: 7,675,540원	총지출: 8,349,560원
잔액 :	-114,613원
현 부채액 :	18,036,400원

<99년 10월 재정 세부사항>

- 지난달 재정보고 가운데, 이월금과 지출내역 중 일부가 잘못 보고되었습니다. 9월 재정의 이월금은 447,948원에서 282,729원으로 바로잡습니다. 또 전화 및 통신사용료가 10,000원 누락된 채 보고되었습니다.

-일본 '한국인 양심수를 후원하는 회'의 이시이 씨가 특별후원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수입내역 가운데, 인권하루소식 구독료와 정기 후원회원의 회비납부액이 전월에 비해 각 11% 씩 줄어들었습니다.(구독료의 납부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사업수익과 후원금이 전월에 비해 줄어들었으므로 이번 달에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전화비용 가운데 70만원을 부채로 총당했으며, 인권하루소식 합본 12호의 제작비용(56만원)과 생수 구입비용(20만원)은 아직 결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출내역 가운데, 식비와 대외사업(연대사업)비가 전월에 비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식비가 증가(34%)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동안 매달 쌀을 보내 주셨던 분의 사정으로 더 이상 쌀을 기증받을 없게 돼 쌀 구매비가 많이 지출됐기 때문입니다.

-11월말부터는 난방비용이 추가로 지출(난로 기름값 월 평균 25만원)될 상황이어서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난방기구 기증하실 분을 찾습니다.

- 사무국은 겨울철과 여름철만 되면 추위와 더위에 곤욕을 치르곤 합니다. 최소한의 냉난방 설비도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상 냉난방 설비를 선뜻 구입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주변에 냉난방 겸용 설비를 기증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난방기구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사무국의 구조상 기름난로 하나로는 사무국 일부 공간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사무용, 회의용 의자 구합니다.

- 사무국 내에 사무용 의자 5개 정도와 회의용 의자(극장용 의자) 약 10개 정도가 부족합니다. 역시 주변에서 기증할 분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후원회원 회비 납부해 주신 분>(가·나·다순)

